

# 제11차 전국 사무국장 원탁회의 결과보고

##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23. 1. 12.(목) 10:30 ~ 11:23 / Zoom 영상회의
- 참석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경기남부 불참)
- 회의 안건
  - ①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근무기간 연장 건
  - ② 경찰청 「2022 경찰백서」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내용
-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
  - ① (서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 ② (부산) 15분 도시, 스마트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외 2건
  - ③ (대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Safe-Home 지원 외 1건
  - ④ (인천)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추진 외 1건
  - ⑤ (광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
  - ⑥ (울산) 전통시장 일대 셉테드 사업 외 1건
  - ⑦ (경기북부) 관계성 범죄의 대응·보호체계 강화
  - ⑧ (충남)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외 1건
  - ⑨ (전남)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 ⑩ (경북) 2023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치경찰제 홍보
  - ⑪ (경남) 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외 2건
  - ⑫ (제주)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추진계획

## □ 회의 내용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이제 올해가 계묘년, 검은 토끼 해라 그러는데 토끼는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영리하고 유능함으로 개체 수를 유지해 나간다 함.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파놓고 유사 시를 대비하고 있다는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던데, 우리 자치경찰 위원회도 토끼보다 더 유능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함.

###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근무기간 연장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정말 이제 날씨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됨. 저도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처장하고도 이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설 전에 한번 뵙자고 여러분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는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정도 많고 또 부담스럽기도 좀 하셨던지 설 이후에 좀 한번 보자고 하셨음.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에 직원 두 명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겠다고 해서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에 1월 10일 두 분이 다녀가셨음.

1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이은 서기관하고 김형렬 주무관이 와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음. 꼭 필요하다는 점을 그 동안 누누히 강조해 왔던 것처럼 인사혁신처에도 말씀을 또 드렸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파견 경찰관이 왜 필요한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애초에 정원 책정이 정말 잘못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두 일괄해서 획일적으로 3명씩 책정된 것은 정말 잘못됐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음.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도 “행안부에 정원 증원 요청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원 증원 요구를 하겠다. 그러한 전제 하에 현재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상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또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

그리고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는 등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주어야 연장 조치가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진일보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듭. 그래서 오늘 파견 경찰 인력에 대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 보냈음. 그리고 지난 번에 카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파견 경찰 인력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좀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면담할 예정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아침에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께서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면담이 불가하다는 요청이 왔음. 그래서 비서관 안 계시면 밑에 행정관들이라도 보고 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행정관들도 대통령실 지침상 내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을 면담할 수 없다고 함. 대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날을 잡자고 하여 13일 자치행정비서실을 방문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오늘 오후에 협의회 회장님이신 서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임.

18개 전국 자치경찰 위원장 또 사무국장 이하 모든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 < 경찰청 「2022 경찰백서」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 내용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2022년 경찰청 백서가 발간이 돼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음. 추진 경과 이런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제도 개선한 사례로 ‘위원 구성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향후 논의 및 검토 필요사항이 있어서 봤음.

이제 경찰청에서도 인식하는 것임.

업무량 고려 없이 위원회별 동일하게 경찰관 정원을 배정한 부분 그래서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부분, 그리고 정원의 파견 경찰관들의 신분 불안으로 우수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언급을 했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사항도 네 가지 언급이 돼 있고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지속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는 것임.

## <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새해 첫 회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새해 인사 겸 에서 한 가지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서울은 반려견 순찰대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9개 구에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2023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음.

사실 경찰관 한 명 증원하려면은 연봉하고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정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의 치안을 우리가 지킨다는 자부심 그리고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 정보나 지리감이 밝다는 것, 내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1~2년 근무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근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또 20~30대 젊은 세대들이 반려견주로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동네 치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음.

마침 오늘 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나서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음.

‘비틀비틀 쿵’ 해 가지고 음주운전자가 반려건 순찰대에 걸렸다는 그런 동아일보 기사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회의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음.

그리고 조선일보에 저희가 유료 광고를 좀 실었음.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경찰이 만든 광고 또 행정기관이 만든 광고치고는 매우 신선하다, 대부분 앞모습 얼굴 찍고 이러는데 뒷모습의 개의 모습 뭔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서 참 좋다는 평가를 좀 받았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주시기 바람.

- (부산 박노면 사무국장) 네 반갑습니다. 상임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음. 부산에서는 스마트 신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음. 부산에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이 있음. 그래서 상습 정체 교차로에 AI 영상을 인식을 통해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교통량에 따라서 최적의 신호 분배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임. 그렇게 함으로써 교차로 대기 시간도 줄이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균특예산 18억과 시비 6억을 포함해서 24억을 가지고 올해 부산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나머지 스토킹이라든가 행복함과 희망 드림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대구 박동균 사무국장)

상임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큰 성과와 가족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함.

우리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인데,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대구시의 예산 2억을 받아가지고 8개 구군에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가정용 cctv, 창문 잠금장치 등 4종 세트를 배부하였음. 그런데 시민들 그리고 언론, 시의회에서 여성 1인 가구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범죄 피해 가구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영역을 좀 확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래서 올해는 여성 1인 가구라는 표현보다 더 크게 주거안전 취약 가구 스테이 보험 지원 사업으로 확대했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내 여론을 반영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음.

각 기업체나 공기업마다 사회공헌기금이 있는데, ESG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구 DB 손해보험이라는 회사와 접촉이 돼가지고 예산 1억 7천만 원을 대구 서부 범죄 피해자 센터를 통해 같이 협업 사업으로 하였음.

홈 도어가드 그다음에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 주거 안전 홈-보안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 최근에 이슈화 되고있는 그런 범죄 피해자에게 하는 지원 사업임.

## ○ (인천 반병욱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아 뜻 하신 모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은 주요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 안전 도시 인천’ 과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음.

‘함께 만드는 여성 안전도시 인천’ 은 2년 차이고,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는 3년 차 추진하고 있음. 금년에는 좀 더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시민으로 공감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광주 오윤수 사무국장)

광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 추진 내용으로는 성범죄 예방, 스토킹 범죄 대응, 가정 폭력 재범 방지 등 3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2년도 주요 추진 상황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상담 챗봇 안내 등 대시민 홍보를 3개월에 걸쳐서 홍보하였고, 여성·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음.

금년에는 지역에 55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체계 통합 지원단을 구축해서 상담 지원 분과, 나눔 분과, 희망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지원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음. 이번 주에 MOU 체결을 하고 있음.

다음으로 스토킹 범죄 재범 예측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비는 특별 교부세 1억으로 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해자의 재범 억제와 교정 통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울산 유윤근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은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주거 밀집 지역 위주로 실시하였던 셉테드 사업을 특별세 특별 기업에서 한 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상대적으로 방범 시설이 열악한 한 40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인회하고 교감이 좀 돼서 자치경찰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저희 지역은 경찰서가 좀 적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서 직위 공모 단계 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함.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울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범죄안전 빛드림’이나 울산의 ‘해 뜬 달빛 시장 만들기’는 네이밍이 참 신선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북부 정용환 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전국 사무국장님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 북부는 금년도에 관계성 범죄 대응 보호체계 강화를 하나의 테마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학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위기 아동 보호센터를 금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경찰하고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지자체, 아동 보호 전문기관 3개 기관이 함께 비상설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대응팀을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보호센터 건물을 새로 만들어 거기에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서 주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홈 CCTV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1년 동안 도경찰청에서 손해보험회사랑 사회보험 기금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음. 그런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게 유료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교부세로 하고 그 후년부터는 지방비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예 경기 북부 감사합니다. 강원 국장님 새해니까 그래도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강원 김종관 사무국장) 우리 국장님도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강원도는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개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 스쿨존’에 대해서 현재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제한 속도를 상향하였음.(22개소 완료)

다음으로 ‘가변형 속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번 달 25일부터 춘천과 강릉 1개소 씩 시범 운영을 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6개소를 더 선정할 예정임.

또 자율 방법대가 4월 27일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되기 때문에 자율 방법대 활성화 방법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음.

또 하나는 지금 대외 업무 관계로 우리가 강원지방우정청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만 해도 지금 집배원들이 850명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해서 비용은 들지 않지만 집배원과 담당 경찰, CPO와의 핫라인 연결 또는 유관 기관의 관계를 유지해서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쪽으로 집중 추진할 예정임. 어쨌든 간에 대면으로 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강원 국장님 안전속도 5030 특히 스쿨존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큰일 하고 계심.

○ (대전 김익중 사무국장)

서울 국장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사무국장님도 금년도 행복하시고 편안하자는 그런 말씀 드리겠음  
그리고 저는 서면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있어가지고 안 넣었음.

임용령에 보면은 경위경감에 대해서 사도지사가 승진을 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승진시키는 권한도 없고 경찰청에서 승진한 자에 대해서 계급장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이런 권한은 행사를 안겠다.’ 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에서 돈을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는 이런 얘기를 하셨음.

그래서 타 사도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이 만약에 불거진 것이 있으면 자문하고자 해서 전화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이것은 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렸음.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대전 국장님 감사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음.

이제 서울도 언론에 몇 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워당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임명장 하나에 사인만 해야되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계속 해 주시기는 하셨음.

그래서 요새는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조사랄지 이런 것도 좀 첨부하고 또 인사승진심사위원회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이랄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을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님들 마음에는 차지 않으실 것임. 좀 더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 ○ (충북 한홍구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충북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 서울 사무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사도 사무국장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한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충남 인사 및 발표해 주시기 바람.

○ (충남 이시준 사무국장)

서울 국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각 시도 국장님들 올 한 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시기를 바람.

충남은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경찰 주도가 아닌 읍면동 주민이라든지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군과 의견을 내면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 사군 경찰 협업을 추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음.

두 번째로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도내에 한 500여 개가 있는데 적정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지 또 식별이 용이한지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하여 내실을 기할 예정임.

또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 집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임.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충남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란이 많음.

시의회 때 보면 지자체 따로 하고 교육청 따로 하고 있고 학교 지킴이, 학교 보안관 예산 차이도 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규모도 이제 적지 않은 규모고 한데, 충남은 사업자 선정은 어디로 했습니까

○ (충남 이시준 사무국장)

이전 아동 지킴이 집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 지킴이인데  
좀 연세가 많거나 심지어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심지 학교는  
많이 물리는데 시골 학교는 지원자가 없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일부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대신 활동 부대 경비는 늘려주고 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임. 올해는 대한노인회에서 경우회로 이관이 돼서 경우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임.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충남은 경우회로 갔군요. 서울은 또 노인회로 갔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전북 인사 한번 해 주시죠

○ (전북 방춘원 사무국장)

예 전북입니다. 전국의 사무국장님들 먼저 건강하시고 복 듬뿍 받으시기 바랍.  
우리 서울 국장님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파견 경찰관 정원 문제가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23년도에 이원화 시범 운영 법을 만들어서 24년도부터  
강원·세종·제주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인데 이원화 시범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전북 국장님 감사합니다.  
희망은 꼭 가져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의 희망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운영과  
전면 실시가 이루어 질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지만 정상적인 타임  
스케줄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임.  
전남 국장님 인사 및 발표해 주시기 바랍.

○ (전남 백혜웅 사무국장)

국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서울 국장님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의 참여와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사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했음.

이 사업은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 지자체, 경찰 공무원 등 10여 명이 ‘지역안전 주민참여단’ 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함. 10억 원의 사업비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음.

아무튼 오늘 국장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전남 국장님 수고 많으셨음. 다음은 경북 국장님 인사와 발표해 주시기 바람.

○ (경북 서진교 사무국장)

네. 국장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음.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노력을 하려고 있음.

작년에 대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해보니까 질문 사항이 많고 의외로 관심이 많았음. 간담회, 포럼, 토크 콘서트 등을 많이 개최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여론을 만들어 우리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네 경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자치경찰 홍보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임. 2021년도 12월에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잘 알고 있다’는 6%였고, ‘들어는 봤다’는 60%였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 번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잘 알고 있다’가 한 20%, ‘들어는 봤다’가 80% 나올 줄 알았음. 그런데 ‘잘 알고 있다’는 여전히 6%에 머물러 있고, ‘들어는 봤다’가 60%에서 74%로 증가를 했음.

설문조사 담당 팀장에게 좀 뭐라고 했음. “왜 ‘잘 알고 있다’를 이렇게 안 올렸느냐”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국장님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라고 반문하여 묻고 말았는데 정말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알리는 게 쉽지 않음.

10일 날 인사혁신처 서기관하고 주무관 두 분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려 한 30분 대화를 할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애매모호하다’고 하시고 한 시간 남짓 대화를 하고 가면서 ‘많이 공부가 됐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음. 경남 국장님 인사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람.

○ (경남 황문규 사무국장)

예 경남입니다. 전국 우리 사무국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울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임. 지역 주민이 우리 동네 파수꾼으로 생활 체안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 동네 파수꾼’이라는 이름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에서 이름을 따왔고, 사군에서 ‘우리 동네

파수꾼' 을 선정하면 '우리 동네 파수꾼' 은 경찰 CPO와 같이 순찰 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임. 지난 해에 3개 군에 대해서 시범실시했고 올해는 5개 군으로 확대할 예정임.

두 번째는 성추행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음. 경찰청에서도 서울, 부산 등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한번 추진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함.

세 번째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교통안전 문화라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길러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외국 가면 잘 서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섬.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교통 안전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고 그런 것을 고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해 면허증도 주고 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려고 함. 독일에서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때 자전거 면허증을 다 따도록 돼 있음. 그 것을 착안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고자 함.

####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많은 새로운 시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도 이제 내일 모레 시장님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할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경남 국장님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전거 면허증 제도는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고 또 부족한 것은 경남 사무국장님한테 여쭙보고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음.

참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이번에 제주 국장님 인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주 강호준 사무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한라산의 정기를 다 담아 보내드리겠음. 만사 형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람.

근래의 관광객 입도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긴 한데 교통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다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다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제도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서울과 7개 시·도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감소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었음.

그 중에 제주가 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6개월 만에 이 것을 폐기를 하였음. 극단의 어떤 처방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방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조례 개정 초안을 정리하였음.

우선은 800여 건으로 신고 포상 예상 수요를 계산했습니다만 앞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음. 그렇게 해서 한 4천여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하여 제도 시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

이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고 고자질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언론 보도가 나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음.

그 외에도 시니어 클럽을 활용한 우리 경찰 보조 도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세종강원·제주가 자치경찰 시범 운영하는 시·도로 선정이 된 것만큼 부담도 많습시다만 다른 시·도에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제주 국장님 조금 먼저 시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사도가 한 번씩 제주도에 내려가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여러 회의가 있을 때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사례,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특별히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의 총괄과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전국 사무국장 원탁회의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음. 시종 진지한 태도로 경청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 국장님들에게 인사한 번 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홍남기 자치경찰총괄과장)

네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저한테까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고 고맙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서울시 자치경찰 총괄과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제가 단순히 참가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국장님들 회의하시는 거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정말 앞으로 자치경찰의 미래가 참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도별 시책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또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국장님들 잘 보좌해서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김성섭 사무국장)

혹시라도 저를 대신해서 전화라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사·도에 또 견학하러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화주시면 반갑게 받아주시고 또 한 번씩 내려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줌 사주시기 바람.

오늘 50분간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 어떤 회의보다도 유익하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았다고 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행안부 경찰국을 가고 내일 또 지방자치비서실에 갈 예정인데,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